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배상 쉬워진다

■ 층간소음을 발생시 4단계에 걸친 힌의 모델

단계	담당기관	처리방법	제재근거
1단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및 종재	아파트 공동 관리규약
2단계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현장진단으로 분쟁해결 유도	환경정책기본법 등
3단계	경찰서	고의적인 경우 범칙금 최고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4단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 현장조사 및 피해배상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부 층간소음을 수인한도 기준

기준	개선안
주간 5분간 평균 55dB 초과	1분간 평균 40dB(순간 최대 소음 55dB)초과
야간 5분간 평균 55dB 초과	1분간 평균 35dB(순간 최대 소음 50dB)초과

■ 생활소음 수치

35~40dB	아이들이 뛰 때 나는 소음, 청소기나 세탁기, 냉장고 등 소음
50dB	회의실 내 소음 정도
55dB	성인이 뛰 때 나는 소음
60~65dB	벽에 밍치질을 할 때 나는 소음

<환경부 제공>



석곡- 1만 3000쪽



<석곡>



<지네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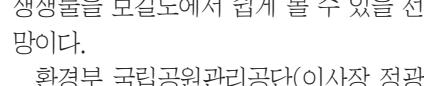
<금자란>

지네발란- 30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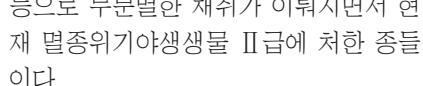
금자란- 100쪽

멸종 위기 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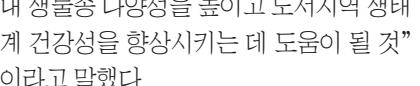
보길도에 식재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야생생물들 보길도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과 공동으로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 난파식물 3종, 총 1만 6100쪽을 다도해상국립공원 내 보길도에 식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된 야생생물은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등으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지면서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에 처한 종들이다.

특히, 지네발란과 금자란의 경우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의 증식 기술 개발로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종이다.

석곡도 대량으로 모종을 길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측 설명이다.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멸종 위기 3종

보길도에 식재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야생생물들 보길도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과 공동으로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 난파식물 3종, 총 1만 6100쪽을 다도해상국립공원 내 보길도에 식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된 야생생물은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등으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지면서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에 처한 종들이다.

특히, 지네발란과 금자란의 경우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의 증식 기술 개발로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종이다.

석곡도 대량으로 모종을 길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측 설명이다.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멸종 위기 3종

보길도에 식재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야생생물들 보길도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과 공동으로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 난파식물 3종, 총 1만 6100쪽을 다도해상국립공원 내 보길도에 식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된 야생생물은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등으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지면서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에 처한 종들이다.

특히, 지네발란과 금자란의 경우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의 증식 기술 개발로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종이다.

석곡도 대량으로 모종을 길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측 설명이다.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멸종 위기 3종

보길도에 식재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야생생물들 보길도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과 공동으로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 난파식물 3종, 총 1만 6100쪽을 다도해상국립공원 내 보길도에 식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된 야생생물은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등으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지면서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에 처한 종들이다.

특히, 지네발란과 금자란의 경우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의 증식 기술 개발로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종이다.

석곡도 대량으로 모종을 길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측 설명이다.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멸종 위기 3종

보길도에 식재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야생생물들 보길도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과 공동으로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 난파식물 3종, 총 1만 6100쪽을 다도해상국립공원 내 보길도에 식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된 야생생물은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등으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지면서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에 처한 종들이다.

특히, 지네발란과 금자란의 경우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의 증식 기술 개발로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종이다.

석곡도 대량으로 모종을 길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측 설명이다.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멸종 위기 3종

보길도에 식재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야생생물들 보길도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과 공동으로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 난파식물 3종, 총 1만 6100쪽을 다도해상국립공원 내 보길도에 식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된 야생생물은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등으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지면서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에 처한 종들이다.

특히, 지네발란과 금자란의 경우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의 증식 기술 개발로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종이다.

석곡도 대량으로 모종을 길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측 설명이다.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멸종 위기 3종

보길도에 식재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야생생물들 보길도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과 공동으로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 난파식물 3종, 총 1만 6100쪽을 다도해상국립공원 내 보길도에 식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된 야생생물은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등으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지면서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에 처한 종들이다.

특히, 지네발란과 금자란의 경우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의 증식 기술 개발로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종이다.

석곡도 대량으로 모종을 길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측 설명이다.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멸종 위기 3종

보길도에 식재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야생생물들 보길도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과 공동으로 석곡, 지네발란, 금자란 등 멸종위기 난파식물 3종, 총 1만 6100쪽을 다도해상국립공원 내 보길도에 식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된 야생생물은 석곡 1만

3000쪽, 지네발란 3000쪽, 금자란 100쪽 등으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지면서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에 처한 종들이다.

특히, 지네발란과 금자란의 경우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의 증식 기술 개발로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종이다.

석곡도 대량으로 모종을 길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측 설명이다.